Dave Mathewson 박사, 신약문학,
강의 4, 유대교와 사회적 가치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David Mathewson 박사의 유대교와 사회적 가치에 관한 신약의 역사와 문학 강의 4입니다.

매튜슨 박사. 기도로 열어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와 아마도 다음 주에 신약 문서를 보기 위한 준비의 배경과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문화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관해 매우 광범위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 왔으며, 특히 신약성서가 기록된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종의 확립을 이루었습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한 배경과 전경. 다시 말하면, 신약성서가 그 영향을 받은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상황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반응하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주로 종교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리스 세계의 그리스-로마와 현재 지배적인 제국이었던 로마 세계, 그리고 유대 세계에서도 다양한 종교적 선택과 영향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종교와 정치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로마에 대한 그리스-로마 세계의 충성심은 종교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와 정치 사이의 엄격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문화적 배경에 대해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배적인 추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경향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지배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가 읽은 내용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은 무엇인지 매우 폭넓게 그려보겠습니다. 신약? 그런 다음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실제로 읽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신약 성서 본문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

그러나 먼저 기도로 시작합시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과 계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고, 우리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최선의 생각을 1세기의 당신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문화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한 가지는 유대교의 종교적 슬래시 철학적 슬래시 정치적 선택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 이어 노트에서 한 섹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자면, 그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종종 유대교 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즉,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중 하나에 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유형의 유대교 내에서 최소한 일부 정당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된 유대교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여러 정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하여 당신의 노트에 유대교 문학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이 익숙하거나 독서 중에 접할 수 있는 두세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신약성서가 1세기에 기록된 유일한 책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약성서는 신약성경 시대와 그 이후에도 성장한 문학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유대인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우리가 신약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신약성서 저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 중 세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 문헌에서 두 번째인데, 그것이 바로 미쉬나로 알려진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와 함께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과 함께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모세의 율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록된 율법과 함께 모세에게 주어진 구전, 즉 구전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문법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문자형식보다는 구전된 계율과 구전법, 구전전통이 집단으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약 서기 200 년 , 즉 이것은 신약성서가 기록된 기간인 서기 약 200년 후 대략 150년에서 100년 후입니다. 이 구전 문헌은 미쉬나라고 알려진 문서에 기록되어 서면 형식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영어로 번역된 미쉬나(Mishna)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더라도 왜 우리가 신약성서보다 100년 정도 늦은 문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구두로 전달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서기 200년경에 성문화되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세기에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쉬나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기록된 율법과 함께 그 주변에서 자라난 구전법의 전통이 있었고, 그 구전법은 마침내 우리가 미쉬나라고 알고 있는 이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저작물은 마지막 저작물 바로 옆에 있는 타르굼(Targums)입니다.

Targums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므로 구약성경이 주로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의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를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예배를 위해 회당에 모일 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해석할 때 그들의 언어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아람어의. 결국 이러한 아람어 번역과 의역도 성문화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처음 에 그들은 설교와 구두 발표의 형태를 취했지만, 그들 역시 현재 우리가 타르굼으로 알고 있는 형식으로 집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신약성서가 나온 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나온 것이지만, 여전히 1세기 유대인들의 생각과 구약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는지를 구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쉬나(Mishnah)는 다시 유대교에 전해진 구전 율법의 기록이고, 타르굼(Targums), 일종의 아람어 의역, 그리고 역시 기록된 구약의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마지막 것 중 중요한 것은 사해 두루마리입니다.

우리는 Essenes와 Qumran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쿰란 공동체에 대해 증언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동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해 두루마리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문서를 발견한 일련의 동굴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 중 일부는 실제로 구약성서에서 쿰란 공동체의 설립이 어떻게 실제로 예상되고 예언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약성서 구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예언적 문헌을 취했고 그것은 선지자들이 실제로 이 쿰란 공동체의 설립을 예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논평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쿰란 공동체는 로마의 통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부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서 그들 자신을 분리하고 광야로 물러나 그들 자신의 종파, 유대교 내에서 그들 자신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종종 구약의 구절에 호소하여 그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의 참된 성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쿰란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다소 엄격한 제도와 심지어 테스트 기간과 관련된 문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Qumran 커뮤니티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레벨을 올리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번에 읽었던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는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이 말을

했을 때, 반항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른들에게 데려가서 그 아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행동한 방식. 그래서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공동체, 쿰란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해야 합니까? 따라서 쿰란 문서는 적어도 당시 일부 유대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이해했는지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풍부한 문헌이 있으며 이것들은 단지 세 가지 예, 즉 미쉬나, 타르굼, 사해 두루마리일 뿐입니다. 유대 종교와 유대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생각하고 가르친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약이 등장한 1세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다시, 우리는 신약성경의 특정 부분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서 중 일부를 자주 참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와 로마 세계는 물론 유대 세계의 정치적 기후와 환경, 그리고 종교적 기후 환경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후 다시 한 번 매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매우 일반적으로 문화적 환경에 대해 생각하며 어떤 문화적 코드가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거나 지시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중요성은 때때로 그들의 문화적 가치가 우리의 문화적 가치와 매우 다르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텍스트, 특히 구약과 신약과 같은 고대 텍스트를 읽을 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특정 문화적 참고 자료를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해당 내용을 읽고 우리 문화에 비추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와 경험.

먼저 우리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했을 고유한 문화적 코드와 가치에 비추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거리를 인식하는 대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러한 사회적 가치 중 몇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치심을 피하라고 라벨을 붙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보다 순응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적 코드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치심을 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1세기에 살았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나 가족에게 수치를 끼치지 않고 명예롭게 행동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 무엇이 부끄러운 행동이고 무엇이 명예로운 행동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회의 규범을 과시하는 데 익숙한 사회에서 1세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적절한 문화적 표준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치심을 피하십시오. 명예롭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인격이 명예라면, 당신의 명예가 의심받고, 당신은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의 모든 복음서, 특히 공관복음에서는 예수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인 복음서 끝부분에서 예수가 심문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종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우리가 이야기한 일부 집단,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갈등을 겪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이 하는 일은 질문을 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는 방식은 단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명예에 도전하는 질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중시하고 자신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사회와 문화에서 올바른 명예의 규율에 따라 생활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명예에 도전하고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예수께서는 종종 곧바로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명예에 도전하십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했다면, 이것은 나중에 살펴볼 제3의 문화적 코드나 가치와 함께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이나 직업을 제공할 장소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일을 했다면,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불명예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재정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특정 혜택을 준 사람에 대해 칭찬하고 인정하고 극도의 감사를 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치심을 피하십시오. 또 다른 예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한밤중에 자고 있던 어떤 사람, 실제로는 그의 이웃,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집에 와서 빵을 달라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여행을 가는데,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양하십시오.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당신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빵이 없는데, 밥을 주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자고 있는 이웃집에 가서 가족들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사람이 자고 싶지 않았는데 일어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자녀와 가족을 밟고 깨우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일어나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지 않고, 자기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 있도록 빵을 주지 않는다면 자기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치심을 피하고 명예롭게 행동한다는 생각은 중요한 문화적 가치였습니다.

또 하나, 사람은 섬이 아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개인으로서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속한 그룹이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 확대 가족 등은 귀하가 개인으로서 누구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의 일부 문화권은 다른 문화권보다 그것을 더 쉽게 이해합니다. 마지막은 후원자와 고객입니다. 이것은 1세기에 매우 중요한 문화적 역동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후원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역동성은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에 이르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끔 여기저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후원자와 고객의 관계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치심을 피하면서 첫 번째 것과 약간 마무리되었습니다. 후원자와 고객의 관계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후원자는 일반적으로 1세기에는 부유한 엘리트가 소수였지만, 잠시 후에 후원자가 사회의 부유한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이 많지 않거나 할 일이 적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은 사람에게 이러한 혜택 중 일부를 부여하거나 확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유한 후원자는 도시 전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직업이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후원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람이 돕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후원자는 부유한 개인입니다. 고객은 후원자가 재정적 혜택을 돕고 확장하는 소외된 개인입니다.

금전적 이익의 대가로 고객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하고 그가 한 일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후원자가 금전적 혜택을 베풀었을 때 극도의 감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고객으로서 후원자에게 극도의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다시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자신에게 수치심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불명예스러운 방법입니다. 후원자-고객 역동적인 후원자, 부유한 개인인 후원자, 할 일이 적은 사람들은 지원에 대한 대가로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며 그들이 도시에서 얼마나 훌륭했는지 자랑하는 대가로 혜택을 확대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세기에 일종의 후원자-고객 역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 뒤에는 그러한 역동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화적 역동성과 관련하여 보다 일반적으로는 아주 빠르고 피상적으로 1세기의 지배 계급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당분간 세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벽하다고 제안하거나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세 가지 수업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유한 엘리트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1세기 부의 대부분은 소수 엘리트의 손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류의 가난한 사람들, 즉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속했을 것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때때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소작농들이었으며 문자 그대로 다음 식사가 어디서 나올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실 수도 있다고 하셨을 때, 독자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 말 그대로 당시 인구의 70% 정도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때로는 다음 끼니가 어디서 나올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범주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로마 세계는 실제로 때때로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세기에는 노예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 중 일부가 노예 제도에 대해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남북 전쟁, 미국 남북 전쟁의 관점에서 노예 제도가 주로 인종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정 인종이나 그런 것에 속했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노예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농부가 되어 밭을 임대하는 것이며, 생산물의 일부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 실패하면 집세를 낼 수 없게 되고 결국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1세기의 노예제도가 긍정적인 경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노예들은 생활 환경이 매우 좋고 꽤 잘 먹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유를 살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로마의 광산에서 봉사하기 위해 징집된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잔인하고 매우 잔인한 조건이었고 아마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그리스-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했으며 1세기 로마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다양한 노예 제도가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다소 열악한 조건까지 다양하게 존재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세기에 살았던 사회, 경제적 구성이 어땠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 중요한 사실은 약 70퍼센트의 사람들이 매우 가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 내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계속 진행하기 전에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배경이 신약성경 본문을 읽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지위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응.

확신하는. 응. 아니요,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종류의 짧은 대답이며, 긴 대답을 원한다면 성경해석학에 등록하십시오. 보세요, 이 수업은 나에게 성경 연구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짧은 대답의 종류는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적 또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자신을 계시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 시점에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따라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원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그것은 아닙니다. 1세기에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두십시오.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를 읽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의도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후에는 오늘날 매우 다른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후자를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래의 맥락에 비추어 먼저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말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양쪽 끝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자신의 첫 번째 청취자와 독자에게 자신을 전달하고 계시하셨는가? 일단 우리가 그것에 대해 씨름하고 그것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주 아주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날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관련된 수준의 성경 해석학에서 그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레이그 블롬버그(Craig Blomberg)의 저서 『신약 이해하기』의 마지막 장도 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매우 조건화된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를 어떻게 그의 백성에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말해주는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괜찮은. 신약성서의 두 가지 예. 그 중 하나는 아마 여러분이 익숙할 것이고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내용 중 일부에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자신의 렌즈를 통해 텍스트를 작성하는데, 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을 볼 수 있는 렌즈가 전혀 없다면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를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신약성서가 그러한 관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신 대로 그것을 다시 읽고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

우리가 읽을 때, 특히 서사적이지만, 읽을 때, 읽기는 종종 공백을 메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모든 것을 쓴다면 글쓰기는 끝없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의사소통을 할 때 나는 당신의 입장에서 특정한 일들을 가정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것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말하려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올바른 관점, 올바른 배경, 올바른 도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은 대개 제가 전달하려는 모든 것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본문에 공백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성경의 저자들도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독자들이 특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모든 단어의 의미, 모든 역사적, 문화적 특징과 가치, 그리고 이것저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독자들이 계시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세부 사항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점은 21세기 독자로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필연적으로 그러한 세부 사항을 채우고 공백이나 공백을 우리 자신의 문화적 아이디어, 가치 및 배경으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 올 때, 제가 이 글 을 읽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징 중 일부는 무엇인지 자문해 볼 가치가 있고 스스로 상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가정과 관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원저자가 어떻게, 그리고 원독자가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 것인지에 따라.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나요? 어떤 역사적인 것들이 있나요? 어떤 지리적인 것들이 그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자는 무엇을 가정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 10장과 25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읽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읽기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중 누가복음 10장 25절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거기에서 무엇을 읽나요? 율법교사가 대답하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으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율법교사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예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에게 아주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자, 이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매개변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이웃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자주 하셨던 것처럼 비유로 대답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들이 그를 뛰어내리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더니 그는 반쯤 죽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지나가다가 길 반대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시체를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 더럽힐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길 반대편으로 가서 지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은 멈춰 서서 그를 도와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모텔로 데려가며, 심지어 그 사람이 나아질 때까지 유지비를 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로 읽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다양한 자선 단체를 가리키는 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병원을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사마리아인 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등이라는 기독교 보험회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세속 사회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그것이 예수의 뜻이었는지, 그의 독자들이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인격을 길들여 위생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구약성서의 조사를 기억한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포로 생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절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품종. 그들은 온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 대한 한 번의 파업입니다.

유대인들은 순종이나 순혈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역사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잃어버린 사랑이 없었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나빴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만드셨을 때,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이나 그리스-로마 독자라면 누구나 이 비유의 주인공이 그들이 예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인물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영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너무 길들여 위생처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비유의 온전한 의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혐오스러워서 여러분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면 무슨 짓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깨끗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가장 가까운 유사점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반드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때때로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을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나 이슬람 지하디스트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 비유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이 비유의 영웅으로 만드심으로써 하신 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아니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역겹게 여겼던 사람을 영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요점은 우리가 이웃이 되고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단순히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요점은 당신의 이웃이 종종 당신의 최악의 적, 즉 당신이 경멸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또 다른 예, 문화적, 지리적 배경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에 있는 첫 번째 2장과 3장은 일련의 일곱 편지, 더 정확하게는 일곱 메시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일곱 예언 메시지입니다. 일곱 교회는 오늘날의 터키인 소아시아 서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작업은 고고학적 발견을 하고 이러한 장소의 대부분의 유적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같은 도시들. 그리고 그 도시 중 하나는 저자가 3장과 15절과 16절에서 언급하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서부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세기의 서부 현대 터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도시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절을 읽은 다음 15절과 16절이 제가 집중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아멘의 말씀을 쓰라.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아멘의 말씀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요 근본이시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는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느니라. 덥지도 춥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리라.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뜨겁고 차갑고 미지근한 이미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냥 덥지도 춥지도 않고 미지근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입 밖으로 토해내려고 합니다. 역겨워요.

분명히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언급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미지근하다. 그리고 그것은 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것이 부패하고 역겹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들을 뜨겁고 차갑다고 부르시며 너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16절, 뜨겁거나 차갑거나 미지근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방식, 그리고 적어도 제가 항상 읽도록 배운 방식은 '뜨겁다'입니다. 이 용어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온도를 나타냅니다. 너무 뜨거운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전문 용어로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위해 불타고 있거나 주님을 위해 불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추위는 이진 반대입니다. 그리고 추위는 부정적입니다.

냉담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고 무관심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함은 일종의 혼합물인데,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템플릿을 요한계시록 3장 15-16절에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 너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입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뜨겁지도 않습니다, 즉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전문 용어를 다시 사용하자면, 당신은 뜨겁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불타오르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즉 당신은 그리스도를 반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당신은 미지근하고, 중간에 약간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울타리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옹호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저자는 계속해서 '당신이 덥거나 추웠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그때 당신이 뜨거웠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당신이 차가웠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맞서는 입장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미지근하고 소심한 태도로 울타리를 타고 중간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소 무관심하고, 어느 길로 가야할지 모르고, 어느 정도 중간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불타오르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 냉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 중앙에 앉아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이제 저자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서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이해되는 걸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 몇몇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미지근한 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작가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대신, 여기서 우리는 1세기의 환경에 대해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1세기 도시의 매우 중요한 요구 사항이 부족하고 좋은 물 공급원이나 수원 근처에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질문? 라오디게아? 나는 아마 할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좋아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알았어, 내가 어디 있었지?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1세기 도시의 중요한 요구 사항이 부족했는데, 그것은 좋은 물 공급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좋은 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근처에 건설될 것입니다. 그 대신 라오디게아는 실제로 도시 밖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발굴 작업을 통해 라오디게아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 시스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물을 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점은 물 공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미지근하고 미지근하고 약간 낡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즉,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John은 그의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온도, 즉 그리스도를 위한 뜨겁고 차가운 것이나 그 중간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라오디게아 도시의 문화와 지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미지근한 물에 비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체 물 공급원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관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아마도 다시 퀴퀴하고 고여 있고 미지근하여 마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물 공급원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역겨워서 너를 입에서 뱉어버릴 것 같아. 예수께서는 그들의 활동을 보고 너무나 놀라셨습니다. 이제 더위나 추위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영적 경험의 관점이나 영적인 전문 용어로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읽을 필요가 없고, 그 대신 1세기 도시 라오디게아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라오디게아 근처에는 물 공급으로 유명한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였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이런 온천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사진을 본 적이 있고, 히에라폴리스에 이런 온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용 가치가 있는 언덕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 물에 목욕하고 치료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는 치유력과 약효가 있는 뜨거운 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도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는 1세기에도 물이 많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차갑고 상쾌하며 깨끗한 물, 마시기 좋은 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를 살아가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배경에서 그들이 뜨겁고 차갑고 미지근한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이것이 더 그렇게 보였다고 확신합니다. 뜨겁고 추운 것은 모두 긍정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교회에게 너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료에 유익하고 약효가 있는 뜨거운 물인 히에라폴리스의 물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차갑고 상쾌하며 깨끗한 골로새 물과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미지근한 당신의 물과 같습니다.

즉, 당신은 역겹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함은 더위와 추위의 중간이 아닙니다. 뜨겁고 차갑다는 것은 모두 긍정적인 은유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것은 정반대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불길, 그리스도에 대한 냉담함, 중간의 미지근함을 경험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이 글을 읽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 맥락에서 뜨겁고 추운 것은 좋은 것이고, 미지근한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현대인의 더 나은 비유는 영적인 온도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대신 적어도 샤워를 할 때나 면도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이상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때로는 조금 더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뜨거운 물을 좋아합니다. 혹은 자리에 앉아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차나 물, 미지근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뜨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왜 웨이트리스가 테이블로 와서 물이 있는데 계속 채워주는 걸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고인 오래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쾌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더운 것, 추운 것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히에라볼리나 골로새의 물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훌륭하고 바람직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당신은 미지근한 당신 자신의 물 공급원, 파이프로 공급되는 물, 절대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망을 품거나 울타리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만큼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행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다시 그들에게 너무 화를 내셨습니다.

그는 내가 너를 뱉어내려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고 말했다. 당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 실례합니다. 텍스트의 배경과 문화에 대해 조금 이해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그것을 읽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과 가치에 비추어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텍스트 중 하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들 그걸 보나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한 일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이미지들이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물 공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열악한 물 공급에 비해 주변 도시의 물 공급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성경을 살펴보면서 신약성서의 개별 책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배경을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하는 데 얼마나 자주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른 텍스트를 간단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이것과 아주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노트의 다음 섹션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월요일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다시 찾아본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생각할 때 채워야 할 공백 중 일부가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배경, 우리의 우리 자신의 이해,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전통과 성장,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운 방식까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다시 전해집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1세기의 모습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는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가 있고, 편안한 환경과 모든 건초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밝은지 알아차리고, 거기에는 목자들과 그들의 동물들이 있고, 세 명의 현자들이 있고, 심지어 은혜를 입은 천사도 있습니다. 그의 존재와 함께 구유 장면.

그래서 구유 장면은 대중이 소비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을 읽고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통, 우리 자신의 가정,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세부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채울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읽는 법을 배웠고, 어쩌면 조금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1 세기 독자에게 어떤 모습이었을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듣고 읽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의 탄생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두 장소, 예수의 탄생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다른 장소는 로마서 1장에 언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아무도 그 내용을 읽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미안하지만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사건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이며, 각 책의 1장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을 살펴봅시다. 나는 구유 장면에 대한 이 일반적인 묘사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1세기 독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는 실제로 일어났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세부 사항을 어떻게 채웠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그 그림에서 생략하기 가장 쉬운 것은 세 명의 현자의 존재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구유 현장에는 동방 박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집에 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2세 미만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였다는 사실은 실제로 외국 점성술사였던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가 아마도 한 살에서 두 살 사이였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다는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르면 왜 그 세 가지 은사가 있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세 명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한 번 바라건대, 지금쯤이면 그들은 구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2년 뒤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이 누가처럼 아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였다고 말합니다. 첫째, 현자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들 중 세 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별은 그들의 집에 머물렀다. 아니, 그랬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실제로 마태복음 2장에 이르면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점성술사이고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 대해 조금 시간을 할애하여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의 생활, 이집트로 떠나셨다가 돌아오시는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에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즉,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마태복음 2장에 이르면 그것을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과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가장 자연스러운 곳으로 단순히 이동합니다. 다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내지 않을 것이지만 이것은 또 다른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관과 여관 주인입니다. 우리 영어 번역의 대부분은 예수, 마리아,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관에 있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유에 뉘었다고 말합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 이야기,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갔다가 '빈방 없음' 표시가 붙어 있어서 그들이 돌아서고 여관 주인이 그들을 유일한 곳으로 보내는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었다. 나는 그것을 정말로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쫓아낸다는 생각에 기초한 설교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도 예수를 외면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쉬운 점은 누가복음 2장에는 여관 주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두 개의 번역본이 제작되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 단어, 에서 번역된 그 그리스어 단어는 실제로 손님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이 간 곳은 여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처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도시에는 여관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이나 여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친척 집에 있는 손님방으로 갔다. 그래서 여관주인도 없고 여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단어는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여관이 아니라 객실을 가리키는 데 명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친척 집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게 될 손님방이나 손님용 집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Mary는 언제 아기를 낳았나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다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당나귀를 타고 9개월이 지난 후 그날 밤 예수께서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들이 실제로 베들레헴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 그들이 예수님을 모셨는지,

아니면 한두 달 또는 그 이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전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여관이 아닌 손님방에 방이 없었다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본문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결코 손님 방에 머물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손님방에 묵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아기를 가질 시간이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는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아기를 갖고 싶어 할까요? 손님방이 너무 붐볐습니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내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던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객실에 머물렀을지 모르지만 진통이 가까워지고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혼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적인 장소인 이 구유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내용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가정과 전통에 비추어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David Mathewson 박사의 유대교와 사회적 가치에 관한 신약의 역사와 문학 강의 4입니다.